

## 한국남부발전, 사업소 현장 기업설명회(IR) 개최

### 청평양수에서 비상임이사와 30여명의 주요투자자가 참석

한국남부발전은 10월 19일 국내 최초 양수발전소인 청평양수 발전소에서 전 경영진과 비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증권사 및 금융기관 등 30여명의 주요투자자를 초청, 기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4회차인 이번 기업설명회(IR)는 주요투자자들의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설비 현장에 직접 초청하여 회사현황뿐만 아니라 발전과정과 발전시설 등 발전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하였다.

김상갑 사장은 인사말에서 창사 4년차인 南電이 연료비 절감, 건설공기 단축, 국내 최저금리 수준의 자금조달 등 적극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통하여 국내외 초우량기업으로 평가받을 만큼 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발전연료의 구매선 다변화와 사업다각화로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고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여 에너지종합회사로 나아가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南電은 2003년 1,862억원의 순이익 달성을 거둔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74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양질의 현금흐름 구조와 든든한 재무기반을 바탕으로 최상의 국내신용등급인 AAA와 해외신용등급 A- (S&P), A3 (Moody's)를 획득한 초우량기업이다.

南電은 이번 기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로써 향후 국내외 자금조달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동서발전(주), 발전설비 수명연장에 최선

### 울산화력 제4~6호기 수명연장 연구과제 발표회 가져

한국동서발전은 10월 19일 『울산 제 4~6호기 수명연장 및 신뢰성 향상방안 연구』과제 최종 발표회를 겸한 평가회를 가졌다.

울산화력본부에서 열린 이날 평가회는 동서발전 관계자를 비롯 한전 전력연구원, 한전기술(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진지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울산화력 제 4~6호기는 설비노후 및 잦은 일일 기동정지 등 가혹한 설비운영으로 인한 잦은 고장에 대하여 정밀 수명진단 및 신뢰성향상 방안을 전력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3개월 동안 모든 과제를 수행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는 기계, 전기, 제어, 토목, 경제성 평가 등 각 분야별 수행결과 발표와 각 전문분야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수명진단 및 주요 연구내용은 설비수명 10년 연장을 목표로 성능향상 및 효율 향상과 함께 할 것인지 단순 수명연장만 할 것인지 등 3가지 안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교체대상기 선정과 각 방안별 투자비와 경제성을 검토하는 종합 진단 연구였다. 연구결과 3가지 방안에 대하여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중 효율 향상과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완벽한 설비보강으로 설비신뢰성 향상과 함께 신규 발전소와 버금가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면 국내최대 유전소 중간·첨두부하 발전설비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중부발전, 사외전문가 초빙 상사중재 실무교육 시행

### 중재제도의 이해증진 및 실무능력 향상

한국중부발전은 10월 13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본사 제1 세미나실에서 계약업무관련 직원 및 발전회사 참석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외전문가 초빙 상사중재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 최태판 본부장의 강

연으로 소송의 분쟁해결제도인 중재제도의 이해증진 및 중재절차 실무이론과 사례에 대한 전문적이고 간결·유익한 강의로 진행됐으며, 유진찬 관리본부장을 비롯한 50여명 직원과의 격의 없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계약업무관련 직원들은 이번 상사중재 실무교육을 통해 중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 서부발전, 한사랑 마을 봉사활동 펼쳐

한국서부발전은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본사내 자원봉사 신청자를 모집하여 10월 21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아동 보호시설인 “한사랑 마을”을 방문하여 장애아동들의 식사보조와 목욕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그동안 한사랑마을 봉사활동을 통해 가슴 진한 경험을 했던 대다수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1회 이상 봉사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미 안면이 있는 장애아과 친숙하게 놀이 동무가 되었다.

이번에 참여한 10여명의 자원봉사 직원들은 도착 후 놀이시간을 통해 장애아동들과 스킨십을 나누었으며, 혼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는 장애아동들의 손이 되어 점심식사 보조를 한 후 목욕봉사를 하면서 땀으로 뒤통이 되었다. 그러나 마냥 즐거워하는 아동들을 보면서 직원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번 자원봉사는 직원들의 신청이 많아 3회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기술 연수과정 시행

**10개 개발도상국에서 총 16명 참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10월 17일부터 2주동안 원전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추가건설 계획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원자력 관계기관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우리의 원전기술을 소개하는 연수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금번 연수과정에는 아시아의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와 동유럽의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이집트, 남아공, 브라질을 포함한 총 10개국 16명이 참가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본 연수과정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전사업을 하면서 이룩한 기술자립 경험, 한국 원전기술의 우수성 등을 이론교육 및 현장시찰을 통해 연수 참가국들의 원전도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親韓 인맥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원전사업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기술개발로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한 이후 30여년동안 지속적인 성장으로 한국표준형원전을 개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도입에서 기술자립까지의 원전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원전기술은 기술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여 원전도입을 준비 중인 원자력산업 개도국에게는 자국 원전산업 개발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 現代重, 5톤급 굴삭기 신제품 시판

**- 모델명 R555-7 ... 3년간 120억원 투자해 개발**

**- 연료·배기가스는 줄이고, 구동력·편의성을 늘려**

現代重工業은 작업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5톤급 7-시리즈 굴삭기(모델명 R555-7)를 3년간에 걸쳐 120억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굴삭기는 2007년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만족시키는 환경친화형 엔진을 장착해 연료소모율 및 소음진동을 대폭 개선시켰으며, 53마력의 강력한 힘과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손으로만 작업이 이루어지던 엔진 회전수 조절 시스템을 페달로도 가능하게 하여 작업 부하에 따라 적절하게 엔진의 회전



수를 조절함으로써 연료소모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실용신안특허 등록을 마쳤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살리면서 운전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최고급 서스펜션 시트, 고급 인테리어, 운전공간 10% 확대, 대용량 에어컨 장착 등 운전실에 장시간 거주하는 운전자의 안락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장비는 시판 이전인 10월 15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우수 산업디자인(Good Design)」 상품에 선정돼 'GD마크'를 획득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하부 프레임에 힘찬 지형의 작업에 적합하게 설계해 습지 탈출이 용이하도록 견인력을 증대시켰고 백미러, 선바이저(sun visor), 수납공간, 대형 브레이크, 트랙가드(track guard) 등을 추가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번 신모델 개발은 수년간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고객 만족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것으로, 5톤급 굴삭기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비의 주요 제원은 버켓용량 0.18m<sup>3</sup>, 길이 5.9미터, 높이 2.55미터, 폭 1.9미터, 선회속도 9.6rpm, 주행속도 4.0 km/hr, 최대 견인력 5.3ton, 연료탱크 120ℓ 등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R555-7」 시판을 통해 국내 최고 건설장비 업체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두산중, 대우중기 2010년 '글로벌 Top 5' 육성

- R&D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통해 시너지 창출
- 종업원 100% 고용보장, 상생 노사문화 구축

두산중공업은 10월 27일 대우중합기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인수 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기계산업분야에서 '2010년 까지 글로벌 Top 5'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이를 위해 대우중기가 워크아웃 기간 동안 다소 부족했던 연구개발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투자를 강화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산중공업의 중동, 동남아, 대우중기의 중국, 유럽 등 양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 영업망을 효과적으로 접목,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이외의 1위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은 민영화 이후 3년 동안 경쟁

# 회원사동정

력 향상을 위한 변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주주, 주식가치 3배 향상 등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대우증기에 도 이러한 선진경영기법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문제에 대해서도 100% 고용보장과 함께 상호 협력의 대화 채널을 구축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수 이후에도 대우증기의 개별 사업부의 가치 및 상호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합병이나 분할 없이 독립회사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대우증기는 가동률이 높고 인력 또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나눔 경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인수자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1조원의 현금확보가 가능해 유동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LG산전,

**3분기 누계매출 7,326억원, 21.5% 신장**  
**지난해 동기 대비 수출 47.2%, 내수 14.5% 신장**

LG산전은 3분기 누계(1월~9월)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 7천326억원, 영업이익 1천153억원, 경상이익 961억원, 순이익 673억원의 경영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누계 실적과 비교하여 매출액 21.5% 신장, 영업이익 60.8% 신장,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것이다.

올해 LG산전의 3분기 누계 수출은 지난 해 동기 대비 47.2% 신장한 1천906억원, 국내 매출은 14.5% 신장한 5천420억원을 실현하였다.

LG산전의 3분기(7월~9월) 매출은 지난해 3분기(7~9월) 대비 17% 신장한 2천322억원, 영업이익은 69.7% 신장한 353억원, 경상이익은 211.3% 신장한 302억원, 순이익은 539.4% 신장한 21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LG산전 관계자는 "3분기(7~9월) 매출은 2분기(4~6월)에 비해 11.4%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12.6% 감소했다"며 "이는 사업특성상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LG산전의 순차입금은 4천57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32억원이 감소하였다.

LG산전은 올해 하반기 내수침체 예상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간 매출 1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